

요한계시록의 이상주의적 해석, 그 근거와 타당성

김경식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초록]

본 연구는 계시록의 이상주의적 해석의 주해적 근거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계시록을 둘러싼 많은 논쟁의 근간은 계시록의 내용이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가와 관련이 있다. 계시록 사건의 성취시기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에는 크게 과거적 해석, 교회역사적 해석, 미래적 해석 그리고 이상주의해석이 있다. 본 논문은 이상주의적 해석을 견지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 가운데 주해적 근거가 빈약함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상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상주의 해석이 계시록 본문 자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본문의 적용에 해당한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상주의적 해석이 계시록 본문 자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견해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이 기록하도록 지시를 받은 내용인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시간에 기초한 삼분법적 해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반복될 사건을 의미한다는 점을 하나님의 삼중 호칭을 근거로 제시한다. 계시록 2-3장에서는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보낸 주의 말씀에 사용된 상징성과 패턴을 근거로 이상주의적 해석을 뒷받침한다. 계시록 3장과 세 재앙시리즈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온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와 재앙들이 철저하게 소아시아 교회들과 관련이 있다는 과거적 해석, 혹은 미래적 환란을 가리킨다는 미래적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상주의적 해석이 적절한 해석임을 보여준다. 바다집승의 정체를 다루는 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는 계시록의 구약사용, 그리고 계시록 자체의 문맥을 근거로 이상주의적 해석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사용되는 보편언어도 계시록의 내용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반복적 사건과 관련있음을 증명한다. 이후 극단적 이상주의 해석이 계시록의 내용을 무한반복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며, AD 1세기의 역사적 정황과 세상 종말인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도 고려해야 계시록의 내용을 타당하게 해석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이상주의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계시록 해석 방법론, 이상주의적 해석, 주해적 근거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계시록의 이상주의적 해석을 뒷받침하는 주해적 근거를 다룬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다.¹⁾ 계시록을 둘러싼 해석의 대혼란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논쟁은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 사건인가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음.

1) 필자는 계시록의 기록연대를 로마황제 도미티안의 통치시기인 AD 95년경으로 본다. 또한 로마황제숭배 제의(imperial cult)와 상업조합(commercial guilds)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시록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이룬다고 필자는 분석한다. 네로황제 환생/귀환(Nero redivivus) 신화(13:3,12,14)나 소아시아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은 영적 위기 등은 계시록의 기록연대를 AD 95년경으로 보도록 만든다.

사실 계시록의 구조를 시간발생 순서의 연대기적 구조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발생할 사건들의 반복적 구조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해석자들의 질문도 결국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의 성취 시기가 언제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도 계시록의 성취 시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계시록의 환상과 사건들이 성취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석사에서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의견을 달리해 왔다.²⁾ 첫째, 과거적(preterist) 해석이 있다. 과거적 해석에 의하면 계시록의 사건들은 전부 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혹은 로마제국의 패망의 시기에 성취되었다고 본다.³⁾ 두 번째 견해는 교회 역사적(historicist) 해석 방법이다. 교회 역사적 해석은 초점을 교회 역사를 AD 1세기에서 출발해 서유럽교회의 역사에 맞추어, 로마교황제도, 이슬람의 출현, 종교개혁, 프랑스혁명 등의 서유럽 역사와 계시록의 내용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며 해석해 가는 방식이다.⁴⁾ 세 번째 해석관점은 미래적(futurist) 해석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시록의 내용 특히 4-22장의 사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 종말의 지점에 가서야 성취될 내용으로 보는 견해이다.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상주의적(idealist) 해석이 있다. 이상주의적 해석은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인

2) Grant Osborne, *Revelation*, BECNT (Grand Rapids: Baker, 2002) 18-22. 물론, 이 네 가지 범주 의 구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범주를 융합해 사용하는 학자도 있다. 대표적으로 Craig Koester가 여기에 해당한다. Craig R. Koester, *Revelation*, Anchor Yale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xiii.

3) David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Ft. Worth, Texas: Dominion Press, 1987), xii. Chilton은 계시록이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이라고 해석한다. Eugene Boring도 과거적 해석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Eugene Boring, *Revel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9), 50-51.

4) Christin Joy Tan, "A Critique of Idealist and Historicist Views of Two Witness of Revelation 11," *Bibliotheca Sacra* 171 (July-September, 2014), 336-337.

5) 미래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Robert L. Thomas이다. Robert L. Thomas, *Revelation 1-7: An Exegetical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92), 32

류 역사상 어느 특정 기간과 관련해 해석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계시록 사건을 역사의 특정 사건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해석에 반대한다. 대신에,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에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로 해석한다.⁶⁾ 물론 각각의 입장이 변형되거나 수정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이 네 가지 견해로 대변되는 계시록 해석 관점이 계시록의 해석사에 존재해 왔다.⁷⁾

본 논문은 위의 네 가지 견해 가운데 이상주의적 해석의 주해적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주의적 해석을 견지하는 주석이나 연구들은 이상주의 관점을 해석의 틀로 사용하지만, 계시록 텍스트상의 주해적 근거를 철저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⁸⁾ 이 연구는 계시록 본문의 주해적 근거를 기초로 이상주의적 해석의

6)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해석한 글은 Stanley N. Gundry and C. Marvin Pate, ed(s)., *Four Views on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98), 2장 An Idealist View of Revelation을 참고할 것.

7) 부분적 과거주의 해석은 과거적 해석의 수정된 모습 혹은 이상주의적 해석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적 해석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넓게 보면 미래적 해석의 수정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8) 예를 들면, G. K. Beale은 그의 계시록 주석 서두에서 계시록의 이상주의적 해석을 간략하게 개관만 하고 근거 자체 제시를 생략하고 있다.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9), 48. 또한 William Hendriksen의 이상주의에 대한 설명도 계시록 본문상의 근거 제시가 매우 빈약하다. 그가 제시하는 네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사도 요한의 시대에 교회가 경험하는 핍박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참된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핍박의 전형이다. (2) 계시록의 많은 예언은 일년 혹은 일정 기간에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있는 내용이다. (3)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7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시록의 내용은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4) 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데, 이 복은 단지 몇몇의 그룹 사람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22:18). William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1982), 10. 이와 유사하게 Noe도 계시록 해석에서 과거적 해석과 이상주의적 해석의 융합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논문의 제목과는 달리 이상주의적 해석의 주해적 근거를 계시록 본문 자체의 해석을 통해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John Noe, "An Exegetical Basis for a Preterist-Idealist Understanding of the Book of Revelation," *JETS* 49/4 (Dec 2006): 767-796.

타당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후, 극단적 이상주의 해석의 한계와 약점을 지적한 후, 이 한계를 보완할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이상주의적 해석, 그 근거와 타당성

가. 이상주의적 해석

계시록에 관한 이상주의적 해석은 보통 상징주의적 해석이라고 불린다. 계시록의 사건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주의적 관점은 계시록의 내용이 단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과만 관련이 있다고 보는 해석을 거부한다. 대신에 **이상주의는 계시록의 사건들을 초림부터 세상 종말의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반복되는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해석을 취한다.**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주석한 대표적 주요 인물로 19세기 말 영국 Aberdeen 대학의 교수였던 **윌리엄 밀리건(William Milligan)**을 들 수 있다.⁹⁾ 그에 의하면 계시록은 특정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칙을 가르쳐 준다.¹⁰⁾ 이상주의적 해석을 잘 보여주는 계시록 1장 말미에 대한 그의 설명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us we are taught what to expect in the book of Revelation. It will record the conflict of Christ and His people with the evil that is in the world, and their victory over it. It will tell of struggle with sin and Satan, but of sin vanquished and Satan bruised beneath their feet.¹¹⁾

9) William Milligan, *The Book of Revelatio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89).

10) "the action of great principles and not special incidents." D. A. Carson, Douglas J. Moo, Leon Morris,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Leicester: Apollos, 1992), 483에서 재인용.

밀리건(Milligan)에 의하면, 계시록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있는 악이라는 두 세력 사이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요한계시록이 죄와 사탄과 싸우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궁극적인 죄와 사탄의 멸망을 말한다고 해석한다.

20세기 초반에,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한 학자는 윌리엄 헨드릭슨(William Hendriksen)이다.¹²⁾ 그는 계시록을 일차적으로 저자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계시록의 건전한 해석은 1세기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 그러면서도 헨드릭슨(Hendriksen)은 계시록이 단지 1세기 소아시아 성도들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에 사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록된 편지임을 강조한다.¹⁴⁾ 그는 이를 뒷받침할 4개의 근거를 제시하며 이상주의적 해석을 펼쳐간다.¹⁵⁾ 하지만, 그의 근거는 지나치리만큼 간략하면서 요약적이다. 그의 이상주의적 해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설명하는 지점에서이다. 그는 계시록의 주제를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라고 요약한다.¹⁶⁾

20세기 후반에, Tyndale 주석 시리즈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리온 모리스(Leon Morris)도 역시나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다. 그는 계시록에 사용되는 상징들과 이미지들은 로마 시대로부터 온 것이지만 계시록이 제시하는 원리와 의미는 시대를 초월해 영원하다고 주장한다.¹⁷⁾ 20세기 후반에 와서, 그 어떤 학

11) Milligan, *The Book of Revelation*, 19.

12)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3)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0.

14)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0.

15)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0. 앞의 각주 8번 참고.

16)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8-9.

17) Leon Morris, *Revelation*, TNTC, Revis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7), 23. 그의 글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들보다 계시록을 이상주의적 해석과 상징주의적 관점으로 방대하고 철저하게 해석한 학자는 비일(G. K. Beale)이다. 그는 신약의 구약사용 관점으로 분석한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상주의적 해석을 제시한다. 물론 그의 해석은 **구속사에 뿌리를 둔 수정된 이상주의의 관점**이다.¹⁸⁾ 비일(Beale)은 **이상주의, 미래주의 그리고 과거주의를 융합한 해석을 그의 주석에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의 근간은 이상주의적 해석으로 **계시록에 사용되는 여러 상징이 어느 특정 시기에만 제한된 내용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초월한다고 주장한다**.¹⁹⁾ 그런데도, 아쉽게 그는 자신의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이상주의 해석을 설명하면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채, 이상주의 개념만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²⁰⁾

나. 이상주의적 해석의 주해적 근거

그렇다면, 계시록에 대한 이상주의적 해석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이상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은 이 관점이 계시록의 텍스트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계시록 텍스트의 해석을 현대에 ‘적용’한 견해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²¹⁾ 다시

In vision after vision the truth is emphasized that God is supreme and that he brings his purposes to pass in the affairs of men. The illustrations which make the point are drawn from the contemporary Roman Empire, so that the book is securely rooted in a given historical situation. But the principles set out in it are of permanent validity. We see them in operation still. John's conclusion as to the location of ultimate power is just as relevant for us as for the little, persecuted church of the first century.

18) Smalley도 Beale의 수정된 이상주의를 그의 주석에서 채용하고 있다. Stephen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London: SPCK, 2005), 16.

19) Beale, *Revelation*, 48.

20) Beale, *Revelation*, 48

21) Robert L. Thomas, "Literary Genre and Hermeneutics of the Apocalypse," *Masters Seminary Journal* 2.1 (Spring, 1991), 90. 또한 Thomas, *Revelation 1-7*, 32.

말해, 이상주의적 견해는 본문 ‘해석’이 아니라, 본문 ‘적용’이라고 본다. 계시록을 현재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시록이 제시하는 영적인 원리와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적용과정의 결과물이 이상주의적 견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의하면, 계시록의 이상주의적 해석은 계시록 텍스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마치 바울서신이 AD 1세기 바울 당시 어느 특정 지역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영원한 진리가 담겨있는 것처럼, 계시록의 신학적 진리도 시대와 관계없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은 바울서신과 다른 방식으로 시대를 초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상주의적 해석은 단지 계시록의 현대적 적용 차원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계시록 본문 자체가 요구하는 해석 방향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계시록 본문 주해를 통해 뒷받침해 보려고 한다. 계시록의 내용이 어느 특정 시대의 사건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사건들을 가리킨다는 점은 계시록 1장, 2-3장, 재앙의 특성, 13장과 17장의 본문의 패턴,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보편 언어의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계시록의 문맥을 따라가며 차례로 이 본문들과 언어 표현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통해 이상주의 해석의 본문 주해적 근거와 타당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1) 계시록의 서론부 (제 1장)

(가)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1:19)

이상주의적 해석의 첫 번째 근거는 계시록 1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본문은 저자 요한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명령으로,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는다.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시하시는 분은 죽었다가 부활하

신 분으로,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의 권위가 묘사된다. 죽음의 세력까지도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의 왕권에 기초해 요한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는다(19절).

계시록의 해석과 관련해 논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이 기록해야 했던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ὃ ἑίδες καὶ ὃ εἰσὶν καὶ ὃ μέλλει γενέσθαι μετὰ ταῦτ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관련이 있다. 문자적으로 보면, 요한이 “본 것”은 시간상 과거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지금 있는 일”은 시간상 현재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마지막 표현인 “장차 될 일”은 미래에 벌어질 일과 관련된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의 이 삼중 표현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관련해 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요한이 “본 것”을 계시록 1장에 기록된 밧모섬에서 본 환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 내용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장차 될 일”에 해당하는 내용은 계시록 4-22장에 기록된 환상과 사건이라고 본다.²²⁾ 결국 계시록 1장 19절의 삼중적 표현을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계시록의 대다수 내용인 4-22장의 사건을 미래적 사건 즉 재림시기에 벌어질 사건으로 해석하게 된다.²³⁾

하지만, 계시록 1장 19절의 삼중 표현(“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문자적으로 보고 시간상의 분류에 따라 계시록에 기록된 대다수 환상(4-22장)의 시점을 미래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에 사용된 유사한 삼중 표현에 주

22) R. H. Charl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Vol. 1 (Edinburgh: T&T Clark, 1920), 33. R. L. Thomas, “The Chronological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2-3,” *Bibliotheca Sacra* (1967), 321-331. Gerhard A. Krodel, *Revelation* (Mineapolis: Augsburg, 1989), 98.

23) Thomas, *Revelation 1-7*, 115.

목해 볼 필요가 있다.²⁴⁾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ὁ ὢν καὶ ὁ ὢν καὶ ὁ ἐρχόμενος)라고 된 삼중 표현이 있다(1:8; 4:8).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삼중 호칭은 계시록 1장 19절의 삼중 표현과 매우 흡사하다.²⁵⁾ 변이형을 포함한 이 삼중적 호칭은 계시록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용되는데(1:4, 8; 4:8; 11:17; 16:5),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²⁶⁾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지만, 과거에도 계셨고, 또한 앞으로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실 분이시다. **인간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삼중적 하나님의 호칭에 담긴 의미이다. 따라서 유사한 삼중 표현인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도 계시록의 사건이 시간을 초월해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계시록은 철저하게 미래에 벌어질 종말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거나, 과거의 사건만을 기록했거나, 현재의 사건과 일들을 집중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할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문법적으로 볼 때도,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시대를 초월해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삼중 표현은 요한이 “**본 것**”이 두 가지 내용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법적 해석이 가능하다.²⁷⁾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접속사 καὶ의 문법적 역할 때문이다(ἃ εἶδες καὶ ἃ εἰσιν καὶ ἃ μέλλει γενέσθαι μετὰ ταῦτα). “네가 본 것”이라는 어구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두 어구 사이에 있는 접속사 καὶ를 앞 어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설명적**’(epex-

24) Beale, *Revelation*, 165.

25) Koester, *Revelation*, 248.

26) Beale, *Revelation*, 188.

27) 다시 말해, “네가 본 것” = “지금 있는 일” + “장차 될 일”

egetical) **καί로 볼 수 있다.**²⁸⁾ 이렇게 보면 **요한 이 “본 것”은 두 가지 내용 즉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²⁹⁾ 다시 말해, **요한이 본 것은 요한의 시대(“지금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요한 이후의 시대에 일어날 일(“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요한의 시점에서 현재 그리고 요한의 시점에서 시작해 앞으로 전개 될 사건을 다 포괄하는 초림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시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사건, 다시 말해 시대를 초월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나) 속히 될 일(1:1)과 이상주의 해석

계시록 1장 19절과 관련해 계시록의 내용을 언급하는 또 다른 구절은 계시록 1장 1절의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 논의한 계시록 1장 19절의 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본문처럼 보인다. 요한이 받은 계시는 **“만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ἃ δεῖ γενέσθαι ἐν τάχει)**이다. 이 어구는 계시록 22장 6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³⁰⁾ **과거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이 구절을 AD 1세기 요한의 시점을 기준으로 요한 당대에 ‘속히’(ἐν τάχει) 벌어질 사건으로 해석한다.**³¹⁾ 반면에 **미래적 해석을 견지하는 이들은 ‘속히’라는 전치사구보다는 ‘일어날 일들’(ἃ δεῖ γενέσθαι)이라는 부분에 더 주목하면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미래와 관련된 예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³²⁾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표현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요한**

28) 예를 들면, 계시록 2:26에도 접속사 **καί**의 설명적 용법이 등장한다. “이기는 자와(**καί**)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을 가리킨다. 이기는 자, **다시 말하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이다. David E. Aune, *Revelation 1-5* (Grand Rapids: Zondervan, 1997), 208. Koester, *Revelation*, 248. cf. Murray J. Harris, *Colossians and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1991), 298.

29) Robert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62.

30) 변형된 비슷한 어구(**ἃ δεῖ γενέσθαι μετὰ ταῦτα**)가 계 4:1에 사용되고 있다.

31)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51.

32) Thomas, *Revelation 1-7*, 53-56.

당대에 벌어질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속히”(ἐν τάχει)라는 어구가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속히’라는 어구를 ‘갑작스럽게’(suddenly)라는 의미로 보기도 하고, 혹은 ‘확실히’(certainly)라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³³⁾ 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빠르게’ 즉 가까운 미래에 ‘진속하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³⁴⁾ 근접문맥인 1장 3절의 “때가 가까움이라”(ὁ γὰρ καιρὸς ἐγγύς)는 표현도 계시록의 내용이 저자 요한 당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³⁵⁾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속히’(ἐν τάχει)라는 어구를 요한 당대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과거적 해석처럼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의 반복적인 패턴은 1절의 “속히 될 일들”(ἃ δεῖ γενέσθαι ἐν τάχει)을 요한의 당대에 벌어질 사건이나, 요한의 시점에서 매우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만 제한시키려는 해석을 막아선다. 계시록에서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 주는 패턴이 있다.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들은 내용(유다 지파의 사자, 5:5)을 뒤에 이어지는 요한이 본 내용(죽임당한 어린양, 5:6)이 해석해 준다. 이 패턴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신 방법은 정치 군사적 힘이 아닌,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³⁶⁾ 이와 유사하게, 계시록 7장의 ‘십사만 사천명’(7:4-8)의 의미를, 뒤따라오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7:9-17)가 해석해 준다. 또한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21:1)이라는 새 창조의 의미를, 그 뒤에 나오는 도시 이미지인 새 예루살렘(21:2)과 새 성전(21:3) 개념이 다시 설명해 준다.³⁷⁾ 이렇듯 계시록에서는 뒤

³³⁾ Mounce, *Revelation*, 41. 김추성, 『요한계시록 1-9장』 (경기: 킹덤북스, 2018), 104.

³⁴⁾ Mounce, *Revelation*, 41.

³⁵⁾ G. K. Beale, “The Influence of Daniel upon the Structure and Theology of John’s Apocalypse,” *JETS* 27/4 (Dec. 1984), 416.

³⁶⁾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UP, 1993), 74.

에 오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을 근거로 볼 때, 요한이 기록해야 할 내용인 “속히 될 일들”(1:1)을 뒤따라오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일어날 일들”이 해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1장 1절과 19절을 서로 관련된 어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구절 모두 요한이 받은 사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1장 1절의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요한이 본 주의 날 환상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 예수의 1인칭 말씀이 해석해 준다. 즉, 요한 시대에 ‘속히 일어날 일들’은 단지 요한 시대에만 일어날 사건들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일어날 일들” 즉 시대를 초월해 반복될 사건들이라고 다시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시록 1:1-3은 계시록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표제어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³⁸⁾ 따라서 “속히 될 일들”(1:1)은 계시록 전체를 AD 1세기 저자 요한 당대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적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계시록 19-22장의 내용은 세상 종말과 관련된 사건이다. 계시록 1장 1절의 ‘속히 될 일들’이 요한 당대의 사건과만 관련이 있다면, 세상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19-22장은 ‘속히 될 일들’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혹은 부분적 과거주의 해석처럼, 계시록 1장 1절의 내용이 계시록 1장~19장까지로 AD 1세기의 예루살렘 멸망 혹은 로마제국의 멸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고, 계시록 20-22장을 세상 종말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³⁹⁾ 그 이유는 1장 1절의 ‘속히 될 일들’이 계시록 전체를 포괄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하는데 역시

37) G. K. Beale, “Eden,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in the New Creation,” *JETS* 48/1 (March 2005), 25.

38) Osborne, *Revelation*, 51. Aune, *Revelation 1-5*, 8-9.

39) Noe, “An Exegetical Basis,” 778. 송영목, “요한계시록의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의 근거와 타당성” (고신대기독교사상연구소 요한계시록 세미나 2021년 11월 자료집, 미출간), 19.

나 계시록 20-22장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 1장 1절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살핀 계시록의 패턴에 근거해 볼 때, 1장 1절이 직접적으로는 요한 당대의 사건을 기록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구절인 계시록 1장 19절이 1장 1절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장 1절은 계시록의 기록내용이 AD 1세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면, 계시록 1장 19절은 계시록의 내용이 단지 AD 1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확대해 준다고 보는 것이 계시록의 패턴상 적절해 보인다. 마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한 교회뿐 아니라 ‘교회들’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확대하는 패턴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계시록 1장 1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계시록의 사건이 AD 1세기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계시록 1장 19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계시록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되는 사건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사이에 반복되는 사건들은 19-22장에서 그 절정과 완성을 이룬다고 보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2) 일곱 교회에 보낸 말씀의 패턴 (계 2-3장)

이상주의적 해석의 주해적 근거가 되는 또 다른 본문은 계시록 2-3장이다. 이 두 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사용되는 패턴들과 상징들은 계시록의 사건들을 단지 과거 AD 1세기에 제한해 해석하거나, 혹은 철저하게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우선,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 일곱 교회에 보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하필 일곱 교회인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계시록에 수신자로 표시된 일곱 교회 이외에도 골로새 교회도 있었

다(참고, 골 4:16). 그러나 저자 요한은 오직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만 계시록을 써 보낸다. 계시록은 1-22장 전체가 하나의 편지로 수신자로 표기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회람되도록 보내진 편지이다.⁴⁰⁾

요한이 계시록에서 오직 일곱 교회만 언급하는 이유를 숫자 7이 가진 상징성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완전함을 상징한다.⁴¹⁾ 따라서 계시록이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개의 지역교회를 염두에 둔 문자적 의미를 배제할 수 없지만,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교회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즉 공간적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AD 1세기의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 계도 해당하는 말이며, 시간적으로도 AD 1세기뿐만 아니라 AD 2세기, AD 15세기, AD 20세기 그리고 AD 21세기의 모든 교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계시록에 사용된 숫자의 상징성이 이와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다.⁴²⁾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부분은, 일곱 교회 가운데 다른 신약성경에 언급되거나 암시되는 교회는 에베소교회(참고, 행 19장, 에베소서)와 라오디게아교회(골 4:16) 밖에 없다는 점이다.⁴³⁾ 따라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를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의 역할의 비중이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 아니라, 상징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둘째로,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보낸 각 편지(주의 말씀)의 패턴도 이상주의적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⁴⁴⁾ 각 교회에 보낸 주의 말씀은

40)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13.

41) Beale, *Revelation*, 58.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16.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T Clark, 1993), 30.

42) Beale, *Revelation*, 58.

43) 신약성경 이외 교부시대에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밀라넬비아, 서머나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남아 있기는 하다. 참고, Michael W. Holmes, ed., *The Apostolic Fathers: Greek Texts and English Translations*, 2nd ed. (Grand Rapids: Baker, 1999). 128 이하.

일차적 수신자를 각 교회의 ‘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에 보낸 주의 말씀 서두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 등과 같이 표기된다. 이 사자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지 혹은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⁴⁴⁾ 하지만, 이 상주의적 해석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각 교회를 수신자로 표기하는 편지 서두와 달리, 각 편지의 결론부에 가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내용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ταῖς ἐκκλησίαις)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권면으로 끝나는 패턴이다(2:7, 11, 17, 29; 3:6, 13, 22).⁴⁶⁾ 한 교회에 보낸 주의 말씀은 그 수신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계시록이 회람용 편지였기 때문에 한 교회에 보내진 메시지는 다른 교회에서 읽혀졌고, 이 때문에 한 교회에 준 권면이 다른 교회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⁴⁷⁾ 하지만, 여기서 “교회들”을 단지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각 편지의 결론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상들이 전부 계시록 마지막 결론부인 20-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종말론적 보상이기 때문이다.⁴⁸⁾ 따라서, 계시록의 일곱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시대적으로 AD 1세기 혹은 요한의 당대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4)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편지이다. 따라서, 계시록 2-3장이 독립적 편지들이거나 일곱 개의 편지들이 아니다.

45) Beale, *Revelation*, 217.

46)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주의 말씀은 특이하게 결론부가 아닌 중간지점인 2:23에서도 한 번 더 “모든 교회”라고 표기한다.

47) Ben Witherington III, *Revelation* (Cambridge: CUP, 2003), 96.

48) Boring, *Revelation*, 89. Jürgen Roloff, *Revelation* (Minneapolis: Fortress, 1984), 46.

(3)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계 3:10)와 세 재앙 시리즈

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주의 말씀(편지) 가운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시험의 때’(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에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상주의적 해석과 관련해 주목해 볼 부분은 ‘시험의 때’가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이 ‘시험의 때’는 일차적으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AD 1세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적(preterist) 해석처럼 AD 1세기 소아시아 교회에 닥쳐오는 ‘시험의 때’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가? 문맥은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시험의 때는 단지 빌라델비아교회 혹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만 임하는 시험의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ἐπὶ τῆς οἰκουμένης ὅλης)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세상의 한 지역에만 국한된 시기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다. ‘온 세상’은 단지 로마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사탄의 미혹과 ‘온 세상’이 연관된 것으로 보아, 세상의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2:9; 16:14).

그렇다면, 이 ‘시험의 때’가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가? 과거적 해석과 같이 AD 1세기의 상황에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AD 1세기 소아시아 교회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⁴⁹⁾ 반면에, 미래적(futuristic) 해석을 하는 이들은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날 시기를 나타낸다고 본다.⁵⁰⁾ 그러나 ‘시험의 때’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석은 이 시기가 이상주의적 해석처럼 이 “시험의 때”를 초림부터 세상 끝날 사이에 반복해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시험의 시기는 우선 AD 1세기의 사건이다.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관련있

49)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129-30.

50) Mounce, *Revelation*, 103. Osborne, *Revelation*, 193.

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에 미치는 시험이므로 재림의 시기에 발생할 사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험의 때를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면 AD 1세기를 가리키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듯한 계시록 3장 10절의 난해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이런 패턴은 소아시아 각각의 교회에 보낸 부활하신 주 예수의 말씀이 각 편지의 결론부에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대되는 패턴과도 같다.

또한, 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3가지 재앙 시리즈도 이상주의적 해석을 뒷받침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6-16장)을 미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이 재앙들을 철저하게 재림 직전에 벌어질 대환란 시기의 재앙으로 이해한다.⁵¹⁾ 계시록 1장 19절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법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미래적 해석에 의하면 계시록 4-22장은 “장차 될 일” 즉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적 해석과 달리, 이 재앙들의 일부는 이미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우선 인재앙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계시록 6장에 기록된 넷째 재앙인 ‘기근’과 ‘흉년’(6:6, 8)은 이미 서머나 교회 성도들 경험하고 있는 “궁핍”(πτωχεία 2:9)과도 관련 있는 사건이다. 또한, 다섯째 인재앙의 내용인 ‘순교’(6:9-11)는 철저하게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벰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계 2:13).⁵²⁾ 다시 말해, 계시록의 인재앙들은 미래의 재림 직전에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AD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재앙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재앙을 포함한 세 재앙 시리즈들(인, 나팔, 대접재앙)은 AD 1세기 혹은 세상 끝날이라는 어

⁵¹⁾ Thomas, *Revelation* 1-7, 416.

⁵²⁾ Beale, *Revelation*, 390.

느 특정 시기에만 국한 시킬 수 있는 재앙이 아니다.⁵³⁾ 이와 유사하게, 계시록의 ‘환란’(θλῖψις)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겪게 될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7:14), 이미 저자 요한이 경험하고 있고(1:9), 또한 서머나교 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란(θλῖψις)이기도 하다(계 2:9, 10).⁵⁴⁾ 결국, 이 재앙들은 AD 1세기에도 발생한 사건이지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경험하게 될 종말론적 사건이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환란’은 AD 1세기에서 시작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다양한 형태의 재앙들이며, 동시다발적으로 반복되는 재앙들로, 이 재앙들의 최고 절정이 세상 끝날의 시기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바다짐승의 정체(13장과 17장의 패턴)

이상주의적 해석의 주해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본문은 ‘바다짐승’에 대한 묘사가 있는 계시록 13장이다. 계시록에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 오는 대상은 붉은 용(12:3), 바다짐승(13:1) 그리고 땅짐승(13:11)이다. 이 사탄의 세 연합체를 설명하는 본문이 계시록의 중심부인 계시록 12-13장이다. 12장은 사탄을 “큰 붉은 용”(3절)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여자를 진멸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기록한다. 큰 붉은 용은 계시록이 설명하듯이 “옛 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이다(12:9). 붉은 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12:10)과 부활(12:5)을 통해 패배를 안고 하늘에서 쫓겨난다(12:9). 하지만, 이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⁵³⁾ Beale, *Revelation*, 374.

⁵⁴⁾ Beale, *Revelation*, 434. 계시록에서 ‘환란’(θλῖψις)이라는 단어는 모두 5회 사용되고 있다. 한번은 요한이 경험하는 환란(1:9)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고, 계 2:9-10에서는 서머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와 관련해 사용된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 처해질 상태(2:22)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와 관련해 사용된다(계 7:14).

쫓겨난 후,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13장은 사탄이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아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짐승에 대한 묘사가 13장 전반부에 제시된다(13:1-11). 이 전반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장 1-8절까지는 바다짐승의 모습과 활동을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인 13장 9-10절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 내용이다. 바다짐승은 일차적으로 로마제국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AD 1세기 소아시아 거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제국은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소아시아 지역을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⁵⁵⁾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공격하고 정복한 로마제국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보였을 것이다.⁵⁶⁾ 게다가 이 바다짐승은 정치군사적 세력이라고 묘사된다. 그 이유는 이 짐승이 열 개의 ‘왕관들’(διαδήματα)을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13:1). 이 διαδήμα는 통치자들이 머리에 쓰는 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짐승이 정치적 세력임을 상징한다.⁵⁷⁾ 또한, 이 바다짐승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ἐξουσία)를 받는다(7절). 다시 말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이다. AD 1세기에 전 세계를 통치하던 정치세력은 로마제국밖에 없다.⁵⁸⁾ 따라서, 이런 정황은 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바다짐승을 로마제국으로 이해했음을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바다짐승은 로마제국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만일 바다짐승이 AD 1세기의 정치군사적 세력인 로마제국만을 지칭한다면, 과거적(preterist) 해석이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은 이 바다짐승이 시대를 초월한 정치적 세력임을 암시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⁵⁵⁾ Mounce, *Revelation*, 246.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Revelation: Vision of a Just World* (Edinburgh: T&T Clark, 1993), 83.

⁵⁶⁾ Beale, *Revelation*, 684.

⁵⁷⁾ Osborne, *Revelation*, 460. cf. Koester, *Revelation*, 569.

⁵⁸⁾ Koester, *Revelation*, 569.

구약배경과 관련이 있다. 계시록은 이 바다짐승을 묘사하면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바다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네 마리 짐승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다(7:3).⁵⁹⁾ 다니엘서의 네 마리 짐승 중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7:4),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7:5). 또한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며(7:6), 마지막 넷째 짐승은 열 뿔 가진 사나운 짐승이다(7:7). 다니엘서의 네 짐승과 유사하게 계시록 13장의 바다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을 가졌고, 사자의 입을 가졌다(2절). 그리고 이 바다짐승은 열 뿔을 가지고 있다(1절).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짐승과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이 닮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이 네 마리로, 각각 다른 네 개의 왕국인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제국을 상징한다.⁶⁰⁾ 반면에, 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네 마리 짐승 이미지를 가져와 한 마리의 바다짐승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⁶¹⁾ 계시록의 이와 같은 현상은 계시록 13장의 바다짐승이 다니엘서의 네 마리 짐승이 상징하는 특정 시기의 통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계시록의 바다짐승이 어느 특정한 시대에 국한되는 하나의 왕국이나 제국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정치적 세력임을 계시록 13장의 다니엘서 사용은 보여준다.⁶²⁾ 저자 요한은 다니엘서에서 특정한 제국을 상징하던 여러 정치세력의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결합해 한 마리 바다짐승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시록 13장의 바다짐승은 AD 1세기 당시의 로마제국으로만 국한될 정치세력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재림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대마다 등장할 정치세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59) Mounce, *Revelation*, 244. Koester, *Revelation*, 569.

60) 반 게메렌, 『예언서 연구』 (서울: 엠마오, 1990), 605-606. Beale, *Revelation*, 685. Koester, *Revelation*, 569-570.

61) Koester, *Revelation*, 570.

62) Beale, *Revelation*, 685.

또한,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짐승이 시대를 초월해 등장하는 정치 세력임을 보여주는 본문 상의 **두 번째 근거**가 나타난다. 요한은 바다 짐승을 묘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3번 **이나 설명**한다. 3절에 따르면, 바다짐승의 머리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되었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καὶ ἡ πληγὴ τοῦ θανάτου αὐτοῦ ἐθεραπεύθη). 12절도 이 바다짐승에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οὗ ἐθεραπεύθη ἡ πληγὴ τοῦ θανάτου αὐτοῦ)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14절은 이 바다짐승을 가리켜 다시 한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τῷ θηρίῳ, ὃς ἔχει τὴν πληγὴν τῆς μαχαίρης καὶ ἔζησε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바다짐승을 가리켜 죽었지만 살아나는 자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이 바다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자로서 메시아같은 존재로 보인다는 의미가 있다.**⁶³⁾ 거기다가 1세기 수신자들에게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해 보이는 로마제국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 표현이 **‘네로의 귀환/환생 전설’(Nero redivivus)**을 암시하기 때문이다.⁶⁴⁾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반복되는 어구인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는 표현’**은 바다짐승이 단지 어느 특정 시대에 활동하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사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력이라는 의미가 있다.**⁶⁵⁾ 요한계시록이 상징적 어구를 사용한다는 점은 이 어구를 상징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시록 13장에서 3번이나 이 어구를 반복한다는 점은 계시록이 바다짐승의 등장이 시대를 초월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것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 이

⁶³⁾ Morris, *Revelation*, 162. Beale, *Revelation*, 689. Roloff, *Revelation*, 156.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437.

⁶⁴⁾ Roloff, *Revelation*, 156. Beale, *Revelation*, 689-690. J. Nelson Kraybill, *Imperial Cult and Commerce in John's Apocalyps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62.

⁶⁵⁾ Morris, *Revelation*, 162-3. Beale, *Revelation*, 688.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자가 활동하다가 죽는다. 그렇지만, 이 핍박자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어느 시기에 바다짐승이 다시 등장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인 예를 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다가 그가 운명을 다하고 죽었다.⁶⁶⁾ 그러면 이 핍박이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시기에 **네로황제**가 일어나 교회를 박해한다. 그리고 네로황제가 죽은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미티안 황제**가 다시 등장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⁶⁷⁾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정치세력은** 어느 특정 시대에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 때까지,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고, 또 죽지만 또다시 나타나는 패턴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패턴을 상징하는 표현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반복적 어구이다. 결국, 이와 같이 바다짐승은 시대를 초월해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또 등장한다는 의미가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살아난다’**는 표현에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다.⁶⁸⁾ 요약하면, **계시록 13장에서의 바다짐승 묘사에 사용된 다니엘서 이미지와, 계시록 13장에 반복되는 어구인 ‘죽게**

66) J. Julius Scott, *Jewish Background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5), 81.

67) Beale, *Revelation*, 689-690. Beale은 네로(Nero), 베스파시안(Vespasian), 도미티안(Domitian)을 그 예들로 제시한다.

68) Beale, *Revelation*, 686-7. Beale이 주장하듯이, 이와 같은 패턴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미 요한일서에서도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사용된다. 요한일서 2장 18절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줄 아노라”고 적그리스도에 관해 설명한다. 이 구절에 이미 already와 not yet의 패턴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 종말에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not yet).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날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다(already). 요한일서를 사도요한이 기록한 서신으로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은 자연스럽게 같은 저자의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살아난'이라는 표현은 바다짐승을 단지 1세기 로마제국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라고 보게 만든다.

결국, 바다짐승은 시대를 초월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정치세력이다. 바다짐승은 1세기에 등장했지만, 2세기에 등장하고, 10세기에 등장하고, 15세기에 등장한 정치적 세력이 된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등장했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적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탄은 그의 하수인인 바다짐승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는데, 1세기에는 로마 제국을 그 하수인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그리고 다른 세기에 사탄은 로마제국이 아닌 또 다른 정치적 세력을 통해 또 교회를 핍박해 왔고, 지금도 핍박하고 있다. 이것이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패턴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탄은 바다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하수인으로 교회를 공격해 온다. 하지만 두 짐승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다. 바다짐승은 핍박이라는 수단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다. 그 이유는 계시록 13장 7절에 의하면 바다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νικῆσαι)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긴다’는 표현은 전쟁용어이다. 따라서 정치군사적 힘으로 성도들을 이김을 의미한다. 반면에 땅짐승은 미혹(πλανῆ)이라는 방법으로 세상과 교회를 공격하는 종교적 세력이다(13:14). 이상주의적 해석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바다짐승이 시대를 초월해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치세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도록 부추기는 종교 세력도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계 16:3, 19:20, 20:10).⁶⁹⁾ 그 이유는 사탄이 이 두 짐승을 하수인으로 부리기 때문이며(계

⁶⁹⁾ 땅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되게 거짓 선지자와 동일시되고 있다(계 16:13, 19:20, 20:10).

12:17-13장), 땅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해 바다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짐승으로(13:12,14) 바다짐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큰 음녀”(1절) 또한 시대를 초월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⁷⁰⁾ 그 이유는 이 큰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καθήμενήν ἐπὶ θηρίον κόκκινον) 있기 때문이다(17:3). 계시록 17장의 붉은 빛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바다짐승’과 동일한 짐승이다. 그 이유는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짐승이 열 뿔과 일곱 머리(13:1)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시록 17장의 붉은 빛 짐승도 똑같이 열 뿔과 일곱 머리(17:3)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바다짐승은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13:3, 12, 14)로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치세력이다. 그렇다면, 이 바다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음녀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세력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교회를 핍박(17:6)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치/경제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 이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큰 음녀는 일차적으로 AD 1세기 상황에서 황제숭배를 강요하던 우상숭배적 로마제국을 상징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여인이 로마제국의 여신 Roma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인 ‘일곱 산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17:9).⁷¹⁾ 또한,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ἡ πόλις ἡ μεγάλη ἡ ἔχουσα βασιλείαν ἐπὶ τῶν βασιλέων τῆς γῆς 17:18)이라고 소개되면서 정치적 세력이라고 설명되는데,

70) Contra 박영진, “요한계시록 17:1-8에 나타난 음녀에 대한 심판,” 『신약연구』 20권 1호 (2021년 3월호), 240-242. 박영진 교수는 음녀와 짐승을 구분하면서 음녀는 로마제국 전체를 가리키고, 짐승은 시대를 초월한 존재라고 해석한다.

71) Koester, *Revelation*, 677. Beale, *Revelation*, 868. Contra 송영목, “계 17-18장의 음녀 바벨론에 대한 다차원적-통합적 해석,” 『신약논단』 제 12권 1호 (2005년 봄호), 118. 송영목교수는 음녀를 배교한 이스라엘과 로마제국 모두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AD 1세기 소아시아 성도들이 연상할 수 있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세력은 로마제국밖에 없다.⁷²⁾ 하지만, 바다짐승을 탄 큰 음녀는 과거적(preterist) 관점이 보듯이 로마제국으로만 국한해서 볼 수 있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음녀가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바다짐승을 ‘타고’(καθήμενῃν ἐπὶ) 있기 때문이다(17:3). 바다짐승이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력이듯이, 이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음녀도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D 1세기에도 이 큰 음녀는 존재했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 어린양의 재림 때까지 등장하는 세력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 끝날까지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연속해 등장할 우상숭배적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5) 보편 언어의 사용

계시록의 내용이 AD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 혹은 세상 끝날의 어느 특정한 시기, 특정 사건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는 **계시록에 사용되는 보편 언어(universal language)와 관련이 있다.**⁷³⁾ 계시록은 빈번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보편 언어를 즐겨 사용한다.**⁷⁴⁾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에서 7회 사용되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πάσης φυλῆς καὶ γλώσσης καὶ λαοῦ καὶ ἔθνους)**라는 4중 표현과 이것의 변형 어구이다(5:9, 7:9, 10:11, 11:9, 13:7, 14:6, 17:15). 요한계시록은 이 어구를 사용하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칭한다.**⁷⁵⁾ 어린양이신 주 예수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5:9). 또한,

⁷²⁾ Kraybill, *Imperial Cult*, 27.

⁷³⁾ Noe, “An Exegetical Basis,” 793.

⁷⁴⁾ Bauckham, *Climax of Prophecy*, 239.

⁷⁵⁾ Bauckham, *Climax of Prophecy*, 326.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 (7:9). 두 증인이 죽자 이들의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도록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이 막아선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다(14:6).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이들이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도 이들이다. 또한 예수께서 피로 사신 이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종말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도 이 그룹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이 사증 표현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종말론적 보편 심판의 대상이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을 구성하는 사람들(5:9, 7:9)임을 보여준다.⁷⁶⁾ 따라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사증 표현은 계시록의 사건을 단지 AD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나 로마제국에만 국한해 해석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사증 표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어구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세상 나라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11:9)이나 교회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10:11, 14:6)은 AD 1세기나, 종말에만 제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보편 언어에 해당하는 단어나 어구는 ‘온 세상’(3:10) ‘땅에 거하는 자들’(3:10) ‘땅의 임금’(1:5) ‘민족/족속’(1:7; 2:26)이 있다.⁷⁷⁾

다. 이상주의적 해석의 한계

지금까지의 주해적 근거를 고려해 볼 때, 이상주의적 해석이 가장

⁷⁶⁾ Ronald Herms, *An Apocalypse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The Narrative Function of the Universal Language in the Book of Revelation*, BZNW 143 (Berlin: de Gruyter, 2006), 257-260.

⁷⁷⁾ Herms, *An Apocalypse for the Church*, 169-256. Bauckham, *Climax of Prophecy*, 239-243, 326-337.

타당한 계시록의 해석 렌즈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상주의적 해석도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이상주의적 해석은 계시록의 일차 수신자인 AD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정황을 무시할 함정이 있다. 계시록이 시대를 초월해 어느 시대에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하나님의 주권, 성도들의 고난, 사탄의 궁극적 패배를 담고 있다고 보는 이상주의적 해석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역사적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탈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계시록은 일차적으로 요한이 심각한 영적 위기에 놓여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따라서 수신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무시하고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계시록의 내용을 무시간적인 진리를 담은 책으로 보게 만들 위험이 있다. 계시록은 AD 1세기의 상황인 로마황제숭배,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일곱 교회의 위기, 그리고 요한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으로 읽어야 역사적 맥락에서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⁷⁸⁾ AD 1세기 수신자들이 이해하고 권면을 받도록 주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따라서 이 일차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요한이 의도한 의미가 아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역사적으로 AD 1세기에 영적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소아시아 지방의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는 해석은 단지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뿐만 아니라, 계시록 4-22장의 내용까지도 일차적으로는 AD 1세기의 상황에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⁷⁹⁾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이며, 또한 계시록 4-22장도 결국은 AD 1세기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AD 1세기 역사적 맥락에서 계시록에 접근하지 않으면, 계시록은 1세기 소아시아라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78) Beale, *Revelation*, 28-32.

79) Bauckham,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14-15.

공중부양된 공허한 해석이나 기괴한 알레고리적 해석의 모판이 될 위험이 있다.

동시에, 계시록은 종말에 완성이 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이상주의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계시록은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에 일어날 무한 반복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착역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⁸⁰⁾ 논자가 앞서 다룬 이상주의적 해석의 주해적 근거를 통해 볼 때, 계시록은 시대마다 반복되는 사건들을 담고 있음은 분명하다. 계시록이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AD 1세기에는 로마제국의 황제숭배와 교회의 갈등으로 표현되었지만, 다른 시대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형태의 로마제국 그리고 유사한 신성모독적 정치세력과 종교세력이 있다. 그리고, 교회는 각기 다른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다시 등장하는 이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회와 사탄의 싸움은 무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다. 세상 끝날이 있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계 11:15)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날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어린양의 신부로 드러나고 사탄의 삼위 연합체가 불못에 던져질 최후의 날이 있다(계 20:10). 따라서 계시록을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계 21-22)과 관련지어 해석해야 예언으로서의 계시록의 특징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극단적인 이상주의적 해석은 철저하게 AD 1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사건들을 외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주의적 해석은 이 두 극단을 피하고, ‘통합적 이상주의’ 혹은 비일(Beale)의 표현대로 ‘구속사적 이상주의’를 추구할 때 계시록의 원래 의미를 드러내는 타당한 해석적 렌즈가 될

⁸⁰⁾ Mounce, *Revelation*, 29.

것이다.⁸¹⁾ 이상주의는 한편으로는 AD 1세기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의 새 예루살렘까지 품어야 진정한 이상적 해석이 된다.⁸²⁾

3. 결 론

계시록의 본문 특성에 가장 적절한 해석방법은 이상주의적 (idealist) 해석이다. 계시록을 역사의 특정 시기의 특정한 사건과 ‘일 대일’로 대응시키며 해석하는 과거적 해석이나 미래적 해석, 그리고 교회 역사적 해석은 계시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상주의적 해석의 틀이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계시록 본문상의 근거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적절한 해석 방식이다.

계시록은 1세기 소아시아 교회에서 출발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지속적으로 등장할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기에 도달해서야 끝이 난다고 가르친다. 사탄은 AD 1세기 소아시아 성도들을 로마제국의 정치적 힘과 경제적 부를 통해 핍박하고 미혹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로마제국이 멸망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사탄은 또 다른 시기에 로마제국 같은 또 다른 정치, 종교적 세력을 통해 지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한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최후심판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⁸¹⁾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0. 헨드릭슨은 이상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만, 계시록을 균형있게 해석하는 출발점은 AD 1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Beale도 이상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적 해석, 미래적 해석을 통합하면서 구속사의 렌즈로 계시록을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Beale, *Revelation*, 48-49). 김추성 교수도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절충주의 입장을 견지한다 (김추성, 『요한계시록 1-9장』, 서울: 킹덤북스, 2018, p. 64.)

⁸²⁾ Mounce, *Revelation*, 29. Osborne, *Revelation*, 21.

계시록은 소아시아 성도들뿐 아니라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시대마다 반복되는 핍박과 미혹 앞에 굴하지 말고, 예배(worship)와 증언(witness)을 통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1:19)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추성, 『요한계시록 1-9장』, 서울: 킹덤북스, 2018
- 박영진, “요한계시록 17:1-8에 나타난 음녀에 대한 심판,” 『신약연구』 20권 1호 (2021년 3월호): 222-255.
- 반 게메렌, 『예언서 연구』 서울: 엠마오, 1990.
- 송영목, “계 17-18장의 음녀 바벨론에 대한 다차원적-통합적 해석” 『신약논단』 제 12권 1호 (2005년 봄): 99-131.
- Aune, David E. *Revelation 1-5*. Grand Rapids: Zondervan, 1997.
- Bauckham, Richard.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UP, 1993.
- _____.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T Clark, 1993.
- Beale, G. K. “The Influence of Daniel upon the Structure and Theology of John’s Apocalypse.” *JETS* 27/4 (Dec. 1984): 413-423.
- _____.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 _____. “Eden,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in the New Creation.” *JETS* 48/1 (March 2005): 5-31.
- _____. “The Purpose of Symbolism in the Book of Revel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41 no 1 (Apr. 2006): 53-66.
- Boring, M. Eugene. *Revel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9.
- Carson, D. A., Douglas J. Moo, Leon Morris.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Leicester: Apollos, 1992.
- Charles, R. 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Vol. 1. Edinburgh: T&T Clark, 1920.
- Chilton, David. *The Days of Vengeance*. Ft. Worth, Texas: Dominion Press, 1987.
- Collins, John J. *The Apocalyptic Imagination: An Introduction to the Jewish Matrix of Christianity*. New York: Crossroad, 1984.
- Gundry, Stanley N. and C. Marvin Pate, ed(s). *Four Views on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Harris, Murray J. *Colossians and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1991.
- Hendriksen, William.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1940.
- Hermes, Ronald. *An Apocalypse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the Narrative Function of the Universal Language in the Book of Revelation*. BZNW 143. Berlin: de Gruyter, 2006.
- Holmes, Michael W. ed. *The Apostolic Fathers: Greek Texts and English Translations*, 2nd ed. Grand Rapids: Baker, 1999.
- Koester, Craig R. *Revelation*, Anchor Yale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 Kraybill, J. Nelson. *Imperial Cult and Commerce in John's Apocalyps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Krodel, Gerhard A. *Revelation*. Minneapolis: Augsburg, 1989.
- Milligan, William. *The Book of Revelatio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89.
- Morris, Leon. *Revelation*, TNTC. Revis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7.
- Mounce, Robert H. *The Book of Revelation*.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8.
- Noe, John. "An Exegetical Basis for a Preterist-Idealist Understanding of the Book of Revelation." *JETS* 49/4 (Dec 2006): 767-796.
- Osborne, Grant. *Revelation*. BECNT. Grand Rapids: Baker, 2002.
- Roloff, Jürgen. *Revelation*. Minneapolis: Fortress, 1984.
- Schüssler Fiorenza, Elisabeth. *Revelation: Vision of a Just World*. Edinburgh: T&T Clark, 1993.
- Scott, J. Julius. *Jewish Background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5.
- Smalley, Stephen S. *The Revelation to John*. London: SPCK, 2005.
- Tan, Christin Joy. "A Critique of Idealist and Historicist Views of Two Witness of Revelation 11." *Bibliotheca Sacra* 171 (July-September, 2014): 328-351.
- Thomas, R. L. "The Chronological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2-3." *Bibliotheca Sacra* (1967): 321-331.
- . "Literary Genre and Hermeneutics of the Apocalypse." *Masters Seminary Journal* 2.1 (Spring, 1991): 79-97.

_____. *Revelation 1-7: An Exegetical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92.

[Abstract]

Exegetical Bases for Idealist Understanding of John's Apocalypse

Kyoung-Shik Kim

(Associate Professor,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study seeks to provide exegetical bases for idealist understanding of the Book of Revelation. There have been four kinds of interpretative approaches to Revelation so far: preterist, historicist, futurist and idealist interpretations. This study tries to fill the gap left by the idealist approach because the previous scholarly works of idealists have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exegetical bases for its understanding of John's Apocalypse. Critics of the idealist view have argued that idealist interpretation is not based on the textual evidence but on an endeavor to apply John's Apocalypse to the contemporary situations. This article provides exegetical evidence, by examining Revelation 1, prophetic messages to seven churches in Rev 2-3, three series of plagues (seals, trumpets, bowls), the beast from the sea in Rev 13, and a scarlet beast in Rev 17. According to 1:19, John had to write "the thing that you[John] have seen, those that are and those that are to take place after this." This phrase indicates the timeless and transtemporal nature of John's Apocalypse, since it is similar to divine title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which shows God's transtemporal nature as ruler of the world. Also, the generalizing patterns and symbolic number 7 in the

seven messages to the seven churches in Rev 2-3 support the view that Revelation contains transtemporal and timeless events which repeat themselves until the end of the world. “The hour of trial” in Rev 3:10 and some of the plagues are best understood as occurring repeatedly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coming of the Lamb. The beast from the sea in Rev 13 is the most significant evidence for the idealist view of Revelation because of its allusion to Daniel and the recurring phrase ‘its mortal wound was healed’ and its similar phrases (13:3, 12, 14). The scarlet beast in Rev 17 also is identical with the sea monster in Rev 13 and their connection also strongly indicates that the beast is transtemporal. Lastly, the universal language such as “every nation, all tribes, and peoples and languages” in Revelation shows that idealist understanding of revelation is more appropriate approach to John’s Apocalypse. After assessing the limitations of the idealist view, our study concludes that exegetical bases are in favor of the idealist understanding of Revelation.

Key Words

Method of Interpretation, Idealist View, Exegetical Evidence